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物産奬勵의復興에對하야

一

今日과如한國際的交換經濟時代에잇서서는 自給自作主義의物産奬勵는排他的이오非國際的이라하야 非難이잇슬것은勿論이다 그러나國際的交換經濟主義가오늘날우리社會에잇서서必要하다고認識하는理由는自國産品이엇더한經濟的條件下에서畢竟高價生産品이될境遇에限하야 低價生産을할수잇는條件을具有한他國에應하고 生産條件의他에比하야一層有利하고便宜한것을스스로生産하야 互相間의長短을融通하며不便을共除하자는所謂有無相通을圖코자함에在함인즉 [illegible]

二

그러함으로自産品奬勵精神과保護政策에依하야取捨選擇의程度如何[illegible] 交換經濟主義는그나라그社會의經濟發達의內容과程度如何에依하야取捨選擇이同一치못할것이다 [illegible]

三

이『朝鮮物産奬勵』運動이나實로朝鮮人의現下生活로보아서는 [illegible]

河南形勢如何로 時局前途不安

李景林氏岳軍撤退要求

岳維峻氏는南方直隸에軍을進하엿슴으로形勢는再次險惡하게되엿다 天津에서歸來한張學良氏는張作霖氏에對하야馮張妥協에關한軍의誠意가업는것을報告하엿다는데 二十一日夜張作霖氏는奉派幹部와共히密議하고其結果重要使命을帶한急使는二十二日朝大名에向하엿다確聞한바에依하면李景林氏는河南軍의侵入으로因하야突然히京漢線北部의讓渡를拒絶하고强硬히岳軍의撤退를要求하기로決하고 그뜻을張作霖氏에게報告하엿다이러하야河南의形勢如何는時局의前途를左右하는것이라고注目되더라(東京二十二日發)

陳調元氏도 鹽稅差押宣言

吳氏態度에呼應하야

吳佩孚氏의 鹽稅差押宣言에 呼應하야 陳調元氏도江蘇總司令의名義로써 鹽稅差押의宣言을發하엿더라(北京二十二日發)

沈沒中의 潛水艦?

우號船長談

十九日『스토홀름』號船長의報告에依하면同船은去十二日英國海峽을航行中午前七時四十五分頃무엇엔지船底의水中에서爆發이나는것갓치感하고其後수十二個所近處에英國潛水艦『엠』一號가沈沒한事를聞하고或은前記의感觸을潛水艦의沈沒과關係잇는것이아닌가생각하고急速히潛水夫를使하야船底를調査한바船首吃水部의前部에甚히損傷을受하야左舷側으로一丈五尺幅되는數個소를破損하얏다는데或은潛水艦과衝突한것이아닌가고생각한다云云(스톡홀름二十一日發)

衝突은아닌듯

英海軍側觀測

去十九日『스토홀름』號가英國潛水艦『엠』一號가去處不明된지點에서船底에무엇인지激衝을受하고入港後即時船體를檢査하엿다는報道에關하야英國海軍省側에서는『엠』一號의沈沒地點은或은同艦이當日潛航中右『비르』號와衝突하야損傷을受하엿다는文이라하면當然潛水艦은大破하고艦內一面에浸水하야乘組員은全部死亡한것이라고觀測하더라(倫敦二十一日發)

漁業場區交涉

繼續開始

莫斯科에서交涉中인北樺太利權問題가未解決이나期日內에는兩國間에意見一致를見할것이요이에따라日本政府는繼續하야英斯科에서漁業場區改正의交涉을開始할터인바右交涉開始期日은十二月下旬或은明年一月이될터이라더라(北京二十一日發)

釐金廢止解決案

專門委員會에서決定

釐金專門委員會에 中國委員이提出한 具體的解決案大要는아래와갓더라(北京二十二日發)

一、撤廢할釐金標準은 民國八年同九年度豫算에計入된것으로 함

二、撤廢할範圍는 通貨稅의性質을띄인것으로生産消費稅等을包含치아니함

三、釐金補塡은 廢止分에限하야關稅收入에서每年三千萬元을支出함

四、第一期는 民國十五年부터그確實한數字를調査하야一年內에完成하고第二期는十六年부터撤廢를實行하야附加稅收入三千萬元으로써補塡하고三年間에撤廢採票을實行하야此를準備하며第三期는十八年부터關稅自主를實行하야此增收로當然히補塡할일

釐金範圍

中國側提出

二十一日의 關稅會議釐金問題專門委員會는 午前十時居仁堂에서開催되엿는데日、英、米、佛伊五國全權專門委員及 蘭、白、中三國專門委員이 出席하야 보건대中國側으로부터 具體案을提出하고 討議한結果廢止할釐金의範圍種類를決定하기로되고日置全權을爲始하야 各國委員의質問이잇섯스며 末了되자三時三十分에散會하엿는데 此日에中國側은 廢止할釐金十一種類에此收入九千萬圓補塡하는 三年間으로九千萬圓이며 목기鐵道釐金을廢止하는것을 骨子로하는具體案을提出하엿더라(北京二十一日發)

釐金分科會

釐金分科會에서 英國은『마켄』條約八條를理由로釐金의 範圍를考慮하기로하고 米國도亦是中米通商條約四條에 依하야釐金을嚴烈히質問하엿는데 結局釐金의範圍를討究하엿더라(北京二十一日電)

債務委員設立

中國反對로撤回

日本委員은 西原借款整理에對하야債務整理委員會를 設置하고專門으로外債整理問題를討究하기를主張하엿스나 中國委員은如斯한提議에應하는 國民의感情을 招致할念慮가잇다하야極力反對하고 該借款은그用意도亦是 매우不明한바現狀은 [illegible]

政友總裁에—高橋氏를推戴

復辟運動이旺盛

日本政本合同問題의遲延不進하는것은本黨側이急進自重二派에分하야容易히合議되지안는外에一方政友會側이積極的으로期할수업슬가疑問이다 [illegible]

長逝는섭섭한일

(東京電)

朝鮮總督府政務總監으로서逝去한下岡忠治氏는어느意味에잇서不過의人이라할수잇다 [illegible]

政務總監後任

二十五日頃決定

下岡氏의逝去에因하야그後任問題에關하야世間에種種의說을傳하나아즉何等具體的進行이업다그러나政治季節을앞에두고이들政務總監의後任은그葬式終了後即時그決定을見할것이오그期日은二十五日頃이리라더라(東京電)

佛內閣總辭職

財政案의不通過로

佛蘭西의『빵르베』內閣은目下下院에提出中의財政案의進行이如意치못하고形勢가險惡하게되엿슴으로 結局總辭職하기로決定하고首相『빵르베』氏는閣員의辭表를모아서 即時大統領『드메르그』氏에게提出하엿는데 大統領은此를聽許하엿더라(巴里二十二日發)

總辭職의原因

—佛國內閣은드듸어辭職하엿다

그것은國務總理兼財政長官『빵르베』氏가提出한新財政法案中主要한條項이下院에서二百七十五票에對한二百七十八票로否決되야政府側이敗北한故이다右條項은短期國庫證券의利子支拂에對하야臨時『모라트리움』을規定한것이더라(巴里二十二日發)

葬儀는二十五日

下岡忠治氏의葬式은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三時까지青山齋場에서佛式으로執行하기로決定하엿고 葬儀委員長은濱口雄幸氏、副委員長은後藤一氏로決定하엿더라(東京電)

極東平和議定

中國赤化防止와

米政府의提議期待

中國關稅會議는圓滿히解決할것이라고看做하고一般協定後中國에條約履行保障을爲하야極東平和議定締結을米政府는提議하고또中國의赤化防止等의機關을設置하리라고期待되더라(北京二十一日發)

稅率分科會

稅率分科委員會는 二十三日에開會되엿는데 稅率에對하야는日本은旣定方針으로 進行할터이더라(北京二十二日發)

公私共히損失

齋藤總督談

二十二日朝에渡東하고翌日午後六時에千葉에서歸한齋藤總督은一言의町의別邸로訪問하엿다 [illegible]

裁釐는안되나 自主權은有效

『晨報』의注文

關稅會議에對하야 가장公正한態度를取하는中國晨報는二十日에아래와갓혼社說을記載하엿다더라(北京電)

[illegible]

釐金塡補策

委員會組織

中國政府는 釐金廢止塡補方法及其他使途에對하야 列國의信用을得하기爲하야 關稅會議基金使途委員會를 組織하기로되엿더라(北京二十二日發)

內外債整理

國民會議決定

北京大學의提唱에依한 二十二日의國民會議에서 如左한內外債整理案을議定하엿더라(北京二十二日發)

一、交通財政兩部所管의 內外債十一億元餘中八億元을限하야整理함

二、附加稅增收 約一億元中十分의三을內外債整理에充用하고此三十萬元은基金으로新整理公債를發行함

右利率은年四分으로하고 整理機關은財政整理會로하야금辦理케함

排米運動의巨頭 『스』氏에直接談判

酷毒한質問에答辯이困難

[illegible]

對日債務額 二億六千萬圓

日本은 中國側과數字가一致하지안는 不確實債務整理問題에 對하야 [illegible] 日本에對한中國의借款總額은二億六千萬圓이더라(東京電)

林野被害가三十萬町步

담배불과虫害로

總被害額은二百萬圓

豫防撲滅은殖林上의急務

[illegible]

◇東亞漫畫 (投稿歡迎 … 薄謝贈呈)

보재기만씌다가는 넘어질는지

上山滿之進氏

總監後任은

[illegible]

總監에敍勳

朝鮮總督府政務總監 正四位勳二等 下岡忠治 敍從三位(特旨에依하야位一級追陞)

授勳一等旭日大綬章

貴院議事規則

改正協議會

[illegible]

消息

◇阿部充家氏 昨夜京城驛發渡東

横說竪說

◇ 中國에는、米國輸入의國粹主義의虛無主義三五黨이擡頭하야『帝國主義의侵略排除』『國內軍閥의殲滅』의標語를서워다고、當然한趨勢이다

◇ 日本東京에는、十七房이나되는無主의洋館을占據하야、家具萬端은남의집에서無斷借入하고、食事는이웃廚房에서맘대로自供하든窃盜가잇섯다한다、此所謂無主空屋에窃盜가作主

◇ 京城府土地所有를보면、朝鮮人의그것과、日本人의그것이거의相半하고、一人當으로는朝鮮人의그것이日本人의그것에比하야、半分以下이다、朝鮮人이늘어가는것은、줄어오는것뿐!

復興貯蓄債券籤付保險은 八千代生命의堅實을證함

歐米의모든保險의實狀

八千代生命은其粹를行함

一、籤付保險은 國家에奉仕

[illegible]

二、此負擔力은 文化的宣傳

[illegible]

三、保險事業은 宣傳이根本

[illegible]

四、新契約實績 計算하는法

[illegible]

瑞山署巡査告訴한 本報關係事件

三次에裁判無罪되기까지

일심에서유죄로이심에서또무죄로 검사가상고하얏스나필경또무죄로

事件概要

충남서산 경찰서구도경찰관주재소(忠南瑞山警察署舊島警察官駐在所)에근무하는순사 경호영작(鏡戶榮作)과 그주재소에가치근무하든순사 리상욱(李相旭)의 두명이금년일월이십오일에그관내팔봉면양길리(八峯面陽吉里)의 안종록(安鍾祿)의집에서 동리지룡케(池龍濟)의처 장씨(張氏)를 강간하려다가 뜻을 일우지못하고 다시두명이 그의집에이르러 장씨를다리고 순사경호영작은문밧게서파수를보고 순사리상욱은 장씨의방에드러가 그를강간코져하다가 마츰 장씨의남편인지룡케가 드러오게되여 목적을달치못하엿다는긔사가 금년이월삼일부 본보데일천팔백오십일호에 현순사이명이 랑부강간미수(良婦强姦未遂)란표데로발표되자 사실이잇섯든바 리순사검호영작 리상욱두명은 이긔사가 사실무근인동시에 자긔들의 명예를훼손하엿다하야 소속서산경찰서에 그당시본보서산분국당 리광훈(李光勳)씨와 피해자라는 장씨와 그사의재료를 데공하엿다는 안종록(安鍾祿) 리준묵(李俊默)등 네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데긔하엿든바 사실이잇는데이래팔구개월동안 각색으로 재판을하여오든 사실이 피고들이 일심(一審)에서는피고 등이 유죄판결을 밧고 다시공소하야 이심(二審)에서는 무죄로판결되고 검사는다시 상고를하야 고등법원에서 심리한결과 필경 무죄로 판결이되여 피고안종록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렷는데 이사건의 파란곡절은 엇더하엿스며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된 그 판결문에는 엇더한 말이잇는가 — 이제 그 대략을 소개하노라

事實과所聞

먼저이현직순사검호영작(鏡戶榮作) 리상욱(李相旭)두명의 추행소문이 본보긔사로되기까지의 래력을 더러보면 금년일월하순경에 본보서산분국당 리광훈(李光勳)씨가 동군팔봉면양길리 안종록(安鍾祿) 리준묵(李俊默)량씨에게 그 사건의단서를어더가지고 서사건의 진실여부를 조사키위하야 그사실을 확실히 조사한결과 강간미수의 사실이 분명하므로 본보에 긔사를 보낸것이라 한다

강간피해자란 장씨(張氏)는 남편지룡케(池龍濟)를 밧나보고 사실의 단말을 자세히물어본 결과 사실이 틀림업슴을 알게되야 한참동안 경찰서에서 굉장히 수색하엿스나 결국은 엇더한 단서도 엇지못하엿다 하며 이사건의 피해자 장씨는 본래 빈한하게 지내는 터인데 그 자에게는 수치스러운일이 발각되엿다는 소문이 잇다는바

警察의審問調書

『巧妙』한審問과分明한對答

이에서산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네사람을 불러다가 가혹은구속도하고 혹은심문도하야 피고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로 취급하엿다는데 이에문데의초뎜인피해자장씨에 대한경찰의심문조서(審問調書)는 명구절을 번역하여보면

피의자(被疑者)는 일월이십오일밤에 신종묵(愼鍾默)의집에서고소인(告訴人)— 경호영작, 리상욱 — 등과가치 논일이잇느냐

答 가치논일은업습니다

問 고소인들은피의자에게 엇더한 일을하엿느냐

答 ……

『强姦이아니라 犯人을搜索』

◇고소리유의요령

한편으로 이소문이 서산일읍에 이야기거리로 도라다니게됨에 서산경찰서에서 이것을탐지하게되여 문데의순사검호영작은금년일월팔일경에 동군안면면경찰관주재소(安眠面警察官駐在所)로 전근을명령하엿슴니다 그뒤멋칠이지나지못하야 일월삼일에 본보에는 발서그에 대한긔사가 보도되자 이것을본 서산경찰의 실책이 여간이 아니어서 즉시자긔의 잘못을 조사하는동시에 소문의출처와긔사의 유래를 캐여보앗다한즉 ……

電話度數制料金 一通話二錢이適當

경성상업회에서결의햇다

최근경성에 새로히 통신국에서 실시하는 전화도수제(電話度數制)에 관하야 근일에 경성상업회의소에서 결의한 바에 의하면 ……

印刷職工總同盟

각디각조합을망라할터

원산인쇄직공조합(元山印刷職工組合)과 평양인쇄직공친목회(平壤印刷職工親睦會)와 부산인쇄직공조합(釜山印刷職工組合)과 전주인쇄직공조합(全州印刷職工組合)과 경성인쇄직공동맹(京城印刷職工同盟) 등의 발긔로 조선인쇄직공총동맹(朝鮮印刷職工總同盟)을 창립하기로 되야 오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발표한다더라

法人一人 日本人六六人 外國人八八人 朝鮮人一九三人 計二〇〇六人

◇一円未滿 法人七人 日本人二五七人 朝鮮人六、四七八人 外國人 計六四七八人

◇二円未滿 法人五人 日本人六一六人 朝鮮人六五五八人 外國人 計七二〇五人

◇五円未滿 法人一五人 日本人一二一一人 朝鮮人四〇四七人 外國人 四九人 計五三三三人

◇十円未滿 法人二四人 日本人八〇一人 朝鮮人一二〇八人 外國人 二八人 計七〇七五人

◇二十円未滿 法人三〇人 日本人五一二人 朝鮮人五三一人 外國人四三人 計七〇七五人

◇五十円未滿 法人五四人 日本人三四五人 朝鮮人二六八人 外國人三四人 計七〇一人

◇百円未滿 法人四二人 日本人九八人 朝鮮人四〇人 外國人一五人 計一九五人

◇二百円未滿 法人一四人 日本人三三人 朝鮮人一一人 外國人四人 計六一人

◇五百円未滿 法人一五人 日本人一四人 朝鮮人五人 外國人一人 計三五人

◇千円未滿 法人八人 日本人二人 外國人一人 計一一人

所向無處의火田民

옥수수나심거먹게하라고 덕천화면민면당에게진정

평남덕천군(平南德川郡)은본래 산골임으로 종래부터 화면(火田)을갈아 옥수수(玉蜀黍)와감자를심어서 간곤한생활을하는데 사람의 군민의 태반이나되는데 덕천군당국에서는 근년에 화면경작취톄(耕作取締)가엄중하야 감자 강냉이도 심어먹지못하게된 화면민들은 나날이심하야가는 생활난을 견듸지못하야 몃사람은 얼마전에 순텬군봉명면당(順天郡鳳鳴面長)을차져보고 텬권등디에서는 화면도갈아먹을수업슴으로 당신을 차저왓스니 아모조록당신의 관내에서 화면이나 갈아먹고 살게하야달라고애원하엿스나 동면당은이 텬권부터 순텬군내에서는 화면경작을 식히지안는다는말로 거절하야 돌려보냇다는바 덕천군의 생활난은 말할수업다고(덕천)

强盜마저다고 무고하고구류

도박하여돈을일코

경남함안군대산면 대사리(咸安郡代山面大沙里) 조암규(趙岩奎)(三二)는 소맥중개업을하는데 백명에달한다더라(평양) 고를하엿든것이라는바 주재소에서는 일주일구류에 처하엿다더라(함안)

大同郡에大火

一村二十七戶全滅

집일흔동리사람수백명은 서로붓들고길가에서통곡

지난이십일일 오후한시경에 평남대동군 룡면면서리(大同郡龍山面西里)에서불이나서 사오시간동안이나 계속활활하게 맛츰서풍이 붓엇슴으로화세는 더욱맹렬한가운데 동리사람 수백명이 진화에 로력하얏스나 아모효력이업시 더욱더욱맹렬히 타는불은결국 이십칠호라는 한동리를 전부태우고 삼시간에 집들을 일어버리고 먹을량식을 모다 일허버린수백명은 엇지할줄을 모르고다만붓들고 서로우는광경은 참아볼수업다는바 인축에는 별로사상이업고 손해액은방금조사중인데상당히거액에 달하리라하며발화원인도아직알수업다더라(평양)

永柔에火災

교당집이타버려

평남평원군읍내 공립보통학교(平南平原郡邑內公立普通學校) 교당의사택에 지난이십일일 오전네시경에 불이나서 그집이전소되엿는데 원인은미상하나 교당부치는 그부친이 일본에서알른다는말을듯고귀향하엿는데 일권에드리고간다는당신이잇슴으로 그날 학교선생들이 소케도하고 불드피우고 목욕도 하엿는데목욕을하고봉투에버리고각귀도라간후에 불이낫슴으로 엇뎌케되엿는지알수업다고한다더라

平壤小火

평양부 신창리(新倉里)일백이십이번디 차현주(車鉉周)집에서지난이십일오후일곱시반경에 불이 일어나일대소동을일으켯스나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학생권부와동중학교(中學校)생도 삼백명과

◇학생회주최뎡구대회

靑總委員檢束

山一靑年委員도잡혀 공보교당에경고문보냇다고

지난십팔일에 경북문경 경찰서에서는 문경산북면산일청년동맹(山一靑年同盟)의문서위원강훈(姜勳)씨를투인하고 회간부채희진(蔡熙鎭)씨를 상주청년 충동맹집행구일에는 상주청년 충동맹집행위원강훈(姜勳)씨를상주서에교섭하야 문경서로압송하게 하얏다는데 그내용을들은즉 산일청년동맹은 본래자미업게 되여던 경산청년회 산동분회(慶山靑年會山東分會)로부터 새로히조직이된것인바 자연히그내부 조직이 변하는동시에 이전회당이던 산북공보당리상화(李相華)씨도그 동맹과는 관계를끈케되야 그후로는 자조그동맹을 조치못하게 비평한일이 잇섯고 상주청년총동맹에게도 자피업게 선뎐한일이 이잇섯슴으로 그를분개히 녀인 그청년 동맹에서는권고 리상화씨에게경고문을발송하얏는데그것을문오하다하야 그가치한것이라더라

調査員特派

결의도잇서

이소식을들은 조선청년 총동맹에서는 그사실진상을 조사하려고 르파원허홍케(許弘濟)씨를지난이십일밤차로 보내는 동시에다음과가튼 결의까지 하얏다더라

一、閔慶警察의無理와山北公普校長의醜態에關한일을詳細히調査할것

二、慶北地域內에잇는各靑年團體는各其最善의方法으로써閔慶無產靑年運動의進行을積極的으로擁護後援케할것

蝗屍百六十石

경북에서잡은메뚜리

경상북도(慶尙北道)위생과의조사한바에의하면 금년시월까지일개년동안에 동도내에서잡은 메뚜기의 수량은 일백륙십삼석팔두오승사합이 작이엿다더라

某重大犯人出現

경시령에서대활동을개시 돌연히동경에나타낫다고

일본동경 경시텽과 일본 전국각 경찰서가 방금권력을다하야 활동하는모중대사건 범인에관하야 범인은돌연히동경 본소구모려관에투숙하엿다는데 그범인이 지나지못하여 자긔의 신변이 드러나게 되엿다는데 그것을발견하고동경 시내각경찰에서는 더욱비상선을 늘이고 오일밤중에 ○○경찰에 범인모에 관하야 대한 뎐보를 하고 관하각경찰 서에 엄중한 경계를 하는중이라더라 그범인이런날 밤에남겨둔 필적으로 인하야 배우활동을 하든중 새벽까지 경계하고 동사에관하야 겨우 ……

朝鮮人이最下位

家屋稅負擔率

납세의수효는데일만흐되 대개가일원미만자뿐

朝鮮人經濟生活破滅의一面相

경성부 가옥세부과 률로보아그생활상태의 일반을추측 할수잇는데 경성부에서 발표한금년도 가옥세 부담자별을 보면모두 내는사람이 이만오천이백 열명인데 이것을 인종별로 보면법인이 데이백이십인 일본인이 삼천구백 이천이백 일본인이 이만팔백인 조선인이 이천오백여명이고 외국인이 이백삼십칠인 으로그 수효는 조선사람이 데일만흐나 납세액으로 보면 조선사람은대개가 소액납세자로 이원미만이 가장만하 륙천오백 오십팔명이 오그다음이일원 미만으로 륙천사백 칠십팔명이며 이에반하야 일원이하는 일본인과 외국인에 는만흐되 조선사람에게는 한 기는 잇스되 그수도 업시 적은수는만흐되 그규 명도업시 적은 편이엿더라 이것만으로 보면 조선사람이 가옥수는 만흐나 반약한것을 추측할 수 잇는데 이를수자 별로나타내 면아래와갓다더라

◇五十錢未滿

法人一人 日本人六六人 外國人八八人

演藝

現存의映畵製作所 (6)

朝鮮映畵界의過去와現在

지금엇생긴영화는모다열가지 회사의수효는열둘이나된다고

귀보와가치 조선영화가생긴것도 몃종에지나지못하고 처음생긴지도불과이삼년에 지나지못하나 영화케작긔관은비교뎍다수이엿스며 분쟁과파산과알륵도만엇섯습니다 그후로새로히생기여 현재로남어잇는영화케작긔관은 그수효로는넷이잇스니그하나는계림영화협회(鷄林映畵協會) 라는것으로 방태영(方台榮)조일재(趙一齋)또는 식산은행모임인이 중심으로황금뎡일뎡목에 사무소를두고뎌국과 및관령의교유영화선뎐영화등을주당으로 촬영하는터이며 들재로는 종로동삼뎡목일백일번디에사무소를둔선활사(鮮活社)이나 김택윤(金澤潤)을지배인으로 리경선이가촬영에관한케반책임을 맛타가지고신영화를촬영중인데 생긴지멧칠안이되며 배우와간부중에 분쟁이잇서가지고 방금문데중에잇다고함니다 셋재로는 조선영화예술협회(朝鮮映畵藝術協會)니 이는 재동(齋洞)칠십오번디에사무소를 두고감독의책임은리구영이가맛고촬영책임은 일본예술영화협회에서첨년동안이나영화계에관한면구를하엿다는 홍만선(洪萬善)이가 맛허서방금영화케작에 준비중이라하며 시내원동 강무관(：洞講武館) 안에는 현텰(玄哲)의중심으로배우학교(俳優學校)를두고 십여명의배우를기르는중 일변으로촬영부를두어 영화케작을게회중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와결탁을해가지고물산장려에 관한영화를촬영코자하는중이라는데지금까지에 촬영된조선영화와밋영화케작 긔관의총결산은 다음과갓다함니다

一、東亞文化協會(現存)漂香傳 悲戀의曲、흥부놀부뎐

二、朝鮮키네마(解散)海의悲曲 雲英傳、神의御

三、閔成社撮影部(解散)薔花紅蓮傳

四、白南프로닥손(解散)沈淸傳

五、高麗키네마(解散)開拓者

六、東國文化協會(解散)作品無

七、朝鮮映畵製作所(解散)作品無

八、高麗映畵製作所(解散)雙玉淚

九、鷄林映畵協會(現存)作品無

十、鮮活社(現存)作品無

十一、朝鮮映畵藝術協會(現存)作品無

十二、俳優學校映畵部(現存)作品無

(끗)

名篇 西班牙의舞姬 全九卷

라라바운트 映畵 포라네그리孃 主演

녯날에서반아와불란서는력사상으로 비상히친밀한관계가잇섯다『필림』는데사세씨에 가서반아에서령을되기위하야 공주를『필린』사세의 황후로보내엿는데서반아머신『오리싸레쓰』는그친구『덩찰스치』와결탁하야 불란서로부터 요구하는일을모조리반대하엿다 이『싸잔』의령주(領主)인호화롭고 쾌활한첨은귀족『덩커잘』이방탕하야 가산을탕패하고 령디가몰수되엿슴을 애에 또는결투사건으로국법에의하야 범죄밧게되엿습네에도친한친구이것만으 리싸레쓰는 보르는데 할뿐만 아니라 도리혀죽어업서지면은 자긔의아심이라는것을 채워볼 수가잇스리라는것을 생각하엿 섯다 이야기는조곰진후가방구 엿스나 원지히『덩케잘』이 『싸잔』청에서주연을배푸러슬때 추는녀자요지패를봇다는『집쓰』의『마리타나』라는 계집아희 와사귀엿다가그가청에서 쫏기 여나온뒤에도 그녀자에게목숨 에구원도밧어것슨데 피차간사 랑도하엿것는데 『오리싸렛쓰』 의 자만으로『필린』사세는『덩 케잘』를사형에 처하고『마리타 나』를수중에 넛코자 하엿슴즈 음에『덩케잘』은『나잘랄로』라 고하는어린아희에게 목숨에구 원을바다가지고 『마리타나』를 괴상한인연으로서 신분이나진 세시『덩케잘』의 부인이되며가지고 행복한생활을하게된다는 일편 의시대 련애영화이다 — 이사 진은 지난이십일일부터 시내 인사동조선극장(仁寺洞朝鮮劇場)에서상영한다는데이번에 도 권련에의하야본보독자우대 할인날이 잇슬터이라더라

‖戀의凱歌今日休揭‖

釜山印工罷業에 京城印工後援

경고문과공문으로

지난이십일일에부산에서일어난 부산인쇄직공동맹파업에대하야 시내견지동팔십번디에잇는경성 인공동맹(京城印工同盟)에서는 작일에부산인쇄공업조합(釜山 印刷同業組合)에향하야 경고문 을발송하는동시에부산인쇄직공 조합(釜山印刷職工組合)에응원 하는글을보내며전선각디에잇는 인쇄직공단데에도응원하라는의 미의공문을보내엿다더라

◇모임◇

▲協友靑年總會 시내 림청뎡(林井町)이백이십이번디협우청년회(協友靑年會)에서는금이십사일오후일곱시에그회관에서림시총회를열터이라더라

ヒシ印ミルク

히시표밀크

why?

何故?

이見捨는이러케도說明한가하시는걸으로헤시를주시요 그價合算우는데는 一個가이나옷갈것입니다……

HISHI BRAND

松原商店

◆25-101

朝鮮劇場

名篇 西班牙의踊子 九卷 · 名篇 戀의凱歌 全篇 · 名篇 베나라돈 全九卷 · 文藝劇 白薔薇 全十卷

十一月二十一日(土曜)부터 公開

喜劇 大獲物 全二卷 · 喜劇 九時의市街 全六卷

地方事業

ミヤコ合資會社

大阪市浪江町五〇九 電話土佐堀二八六七番

腎氣不足 神經衰弱 完治

一生을安樂히지내랴면 中國에古有한歷史가昭詳한 勿論이고 世界的權威를獲得한 功効가 드러나는 人所共知요 蒙에 海外에 健康 ……

中國奉天省西塔大街三丁目 華源泰 謹啓

眼耳鼻咽喉齒科專門 大邱 松井病院

全治水

一切皮膚病 其他의良藥

마른버짐 진버짐 습진 음오 피풍 두디기 어루메기

尾澤商店

고무신은신용 잇는지구표요

지구표의 一流 고무신은

合資會社 朝鮮고무

일년간신는신은 지구표고무신이오

독일 물감 原料

品質保證廉價販賣합니다

德國顔料廠

針을世昌

녀자의인간성을무시하는 공창제도에대하야 (一)

……원인을밝혀뿌리를새자

◇오늘날 인류사회 제도 가운데공창제도(公娼制度)와가치 사람사람가운데도 특히녀자의모욕과붓그럼이되는것은업슬것이다 사람은 일반이나갓흔 녀자는 말할것도업고 갓흔사람이라는뜻에 잇서서 남녀가역시다름업이업다 그러한데현사회도덕이 녀자의덕조도 남자의덕조와 일반으로 그방일할을 공인한다하여도 그럿치 못하겟거든 하물며녀자의 덕조를녀자그자신이나 제삼자가 다갓치생명가치보는관념아래에잇스면서 한편으로는 의연히 그런한창게도를공인한다 그것이얼마나 녀자의 사람된권리를 무시하며 한갓동물과갓치녀김인가

◇그러나 어데다닭어우리는 지금새삼스럽게 그케도와 시설을귀수하기위하여붓을드는것이아니라(그것은일후긔회로미루고) 다만그런한케도의발생의원인이 어데잇는가를 한번밝혀보려함에 잇는것이다 문데의범위를 더좁혀상업상관찰의「수요공급」의원측도 그만 두고 창기되는그사람이무삼원인과동긔로그리한데까지게되엿는가하면멀니지난과거와올미래는몰나도현재의상태로만보면세가지의원인이잇다고볼수가잇는것이다 첫재는 금권에팔니는것 둘재는 남에게 꾀임을바더모르고 팔녀가는것 셋재는제가 스사로질거 그네에몸을던지는것이라고볼수가 잇는것이다 다음부터 순서를따라 개개히말하여보려한다

一、금권에팔니는것

금권에팔니는것은 대개는생활난이 그원인이될것이다 생활난이라하면 즉곤궁한 상사이라 합보다 그부모나 그보호자이다 그들(그부모네나보호자)은 사람으로생겨나인류구비와사지육신이 완전히 갓추어잇는것만은 떼개는게우를 그것으로인연하여 득립한생활을하여나아가지못하고 자긔의 공동한그자식을 사람다운 생활을못하는구렁에 미러넛코 그래도 두터운얼굴을 들고안저 배를두다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나간다 그들의 악착스럽고 무신경한 그심리가 얼마나가증스러운가 만일세상에 인정의생존권회득시험을보는게도가잇다하면 그런한인생은 모든파덕에 [illegible] 비에가엽지아니하리오

二、남의꾀임을밧는것

남의꾀임을 밧는것도 문데는역시 금권 그것에잇슬것이다 [illegible]

學窓散話

상ㅅ달(二)

◇고사의달 「곳」의뜻인十月은 古義가곳「神」의月、「拜天」의月인것도 뒤개는이비슷한 무슨意味를가젓슬것이다 不成文化系統의 古義를바든國語에 神聖을意味하는「ᄉ」의語根이 잇서 ᄉᄂ、ᄉᄋ等의種種派生語를가지고 이것이 宗敎上關係로 上(尙)瑞祥、彝、契等語의原素가되니 상ㅅ달의상이 대개이런한原義를가진말임은 그儀俗上現實에비추어보아도 과히어그러지는推測이아닐것이다

◇日本語에十月을カミナヅキ 又カミナシヅキ라하는것을 시방흔히 「神無月」의字를 對하고 그語源을說明호대 이달에는八百萬의諸神이 翌年中國內男女의婚媾를豫決하기爲하야 出雲의大社로會合하야 다른데는神이업서짐으로 名하니라하지마는 동이잘닷지아니함은 무론이오 또 一說에 カミナリナキヅキ即雷無月의 義라함도잇슴으로써 前說이 定案되지못함을알것이다 그러나 그苟且하고종엄기로는 兩說이 거의가트니 취못할것이라한다 日本語에 事神者即巫覡을 カムナギ라하니 神을和悅케한다는意를取함이라한다 カミナシ란실상カムナギ(혹カムヌシ)의 一類語로 カミナシヅキ란또한 事神의月을意味함이아닌가 또日本語의 「ナ」音에는 設、行、成、造、完了乃至類似의義를 包含하여잇슴으로써カミナシ가그대로 우리의「成造」의義가됨직함이 [illegible] 偶然이아닌가 [illegible] 市(神座)인出雲으로 蒐集한다는信仰이잇슴으로써 十月이어떠케神界의 소중한달임을아는 同時에 カミナシ가決코 「巳間」라하는 「업슴」의義가 아닐것을짐작하겟다

◇カミナシの語原에關하야는 이밧게도 十은數의極이매 上無月의義를取한것이란說 純陰無陽의月이매 陽雲言語이라함으로써 陽無月의義를取한것이란등 種種한諸說이잇스나죄다 牽强附會를免하지못한다 カミナヅキ를カミノツキ로 읽는이가잇서 純陰의月이라 [illegible] 無陽의月이지마는 [illegible] 陽月이라한것이라고 하나 그附會의 甚함이 무론이오 마찬가지로カミノツキ라하면 또한 事神의月이라함이 음미할것이다(또カミナ의ナ를 オミナ オトナ의 ナ와한가지 國語의 [illegible]的指示語인「네」에서 나온것으로カミナ가 바로「검네」의語源일지도모를것이다)이런 [illegible] 日本語의 カミナヅキ가 [illegible] 상ㅅ달의 義에버서나 [illegible] 지안흘지니 그는마찬가지로不成文化系統의 故俗을 바다가진自然의 一數일것이다

로빈손크루소 이약이 (三)

그 동안은밤이나낫이나이번 그놈들이오면 무슨방법으로처면조흘고? 한번죽이면 도이어쉬오지나안을는지? 만일그런라하면거의한명이 엽슬것이고 필경은몟백명이 뒤쏠어올것이나잣잣잘못하다가는 그놈들의 손에걸니기만하면 나는그만인 아닐가——이처럼나케는 묵어운고민에 마음이잇고밤에는무서운꿈을꾸어 자못마음편할날이업섯습니다

이 리하는동안에 세월은 소래업시흘너일년이 훨신지나어 둥해오월도 반이나지낫습니다 그목표에새인것을 보니 밧십쿠이라고써여 잇섯습니다 이날은 종일큰버와 바람이부럿던동이 어러나고 번개가처고어 밤새 지그모양이엇습니다 무슨동기 엇지는지모르겟스나 성경을내어가지고 읽으면서지금의내몸을생각하노라닛가 뜻밧게바다에서란바다편에서 총소리가들녀왓슴니다 이게 뜻웬일인가 닭고

급 히옷을거더입고나서사다리를타고 엇지나쌀니서들엇든지순식간에 산중턱까지올나가는데바다편에서 무엇이지반착하더니삼십초중에 데이의호포가들넛습니다 그총소래로거리를짐작하여보니 내가파선을당하든그곳인듯십헛습니다 그것은아무래도 배와선을당하고 달은배에구원을 청하는신호인지도모르겟다 내가처편은혹엇지지못할지언정 커편은은구하면나를구하여줄수가 잇슬지도모르겟다고 생각하고사방에잇는마른나무를모아 봉불질은즉 잘말넛기때문에 바람은새엿스나화활잘탓습니다 그 래커편에서도그것을보앗든지홍연히 호포소래가들니며 게속하여여러방이나 한방향에서 울녀왓습니다 희쇼무르우하게 날이밝기까지 불을피우고 잇다가 해가붉그레이 올고 나올때에는 날도 거의들어가고 섬동편으로 멀니바다커편에 돗인지 배인지몰을것이눈에보엿습니다 망원경으로보아드 그정데는 보이지아니하엿습니다 묵그편을바라보아도조금도움알엇스나 아모리하여도마음에걸녀견댈수가업섯습니다 그래총을걸너메고 내가먼컴에배를타고 나가다가혼이나든그곳까지가서본즉 분명히보이는것은밤사이에 암초에부드쳐바위에올나안즌파선된 배엿습니다

時事一束

南原女子講演會

(全北南原)읍내기독교회주최로 십구일 오후일곱시부터 당디려배당에서 금주 금연 교육 모두 히네란 연데로 여러연사들의열렬한론변이잇서 인산인해를 이루운다수청중에게만흔늣김을주고동아홉시에 무사폐회 하엿답니다(남원)

創作 眞珠는 주엇스나 (三九)

廉想涉 作

三一

그러나 효뎡이는 어쩌하여야 조흘지를몰랏다 남편의 부탁대로 인숙이를달래서 리가에게로 보낸다해도 가엽슨일일뿐 아니라 공연히참관을 햇다가 그야말로 [illegible]

[illegible]

童話 파랑새 (一)

孤星 作

『한번가신우리엄마 어데가고못오시나 사랑하는우리엄마 언케다시오시려나 커덕해가저물면 오시려나 날이새면오시려나 금우밤이어두으니 달이뜨면오시려나 겨울날에눈이오니 봄이오면오시려나 사랑하는우리엄마 언케다시오시려나』

이런한노래를 쉴게 부르며넷적 오란넷적 어떤시골외쏘막사리 아주퍽불상한오뉘가잇섯습니다 누이는복순이라하는데아홉살이고 동생은 옥동이라고하는데겨우네살밧게 아니되엇습니다 [illegible]

[illegible] 다낫습니다 [illegible] 가사는그오막사리에도 [illegible] 뜻한봄철이도라와 복상한 오뉘 [illegible] 이처럼얼마동안지나는동안에 [illegible] 「셰상에몹슬귀신도 다잇지요」 그함머니는마지못하여 [illegible]

[illegible] 옥동이를그러안으며 [illegible] 『설워 우리는안갈테야 여기가 우리집어요 여기잇스면 인케 우리어머니가 데릴너오죠』 하고누구가억지로데려갈가무서워하는듯이 옥동이를 꽉 그러안엇습니다 [illegible]

文藝瑣談

長白山人

新文藝의價値 (十九)

◇林檎과 사랑을 混同하는 林檎알을 벗겨 조각조각난 [illegible] 料理를만드는愛人은 [illegible]

[illegible]

雜論

中國留學 過去現在將來 (2)

頌兒

一、南京上海留學史

[illegible] 一九二三年夏에 上海에서 [illegible] 上海에서開催되엇고 第二回는一九二三年夏에 亦是上海에서 [illegible]

[illegible]

詩歌

비오는밤

李永根

늦가을 묵어운밤
구슬로비 드리우고
쓰라린 넉두리의
풋뎡이 푸덕일예
험버슨 나무가지
근심의 눈물지니
고달푼 이맘좃차
말못할 서름깁허
가닥진 이마음은
아득한 찬거리의
비맛는 뒤슴달어
울며 헤매인다

人生 榮枯의分岐點

生殖器와腦

精力、神經의衰退

가튼나히로이처럼달을가?

戶塚醫學博士推奬

도쓰가빈

一回一錠 トッカピン

頭內朦朧 本劑의獨有한强腦强精成分은 날근疲勞物質과新陳代謝하야 頭腦가改造的으로明快히된다

健忘不眠 神經이强健히되고記憶力을增進하야밤에는熱睡安眠하야短時間을자도翌日머리가爽快하게된다

遺精夢精 過淫手淫의害로性的欠陥을回復하고生殖器神經의病的錯覺이업서精力堅實히抵抗力强하게된다

早漏陰萎 本劑의强精成分에依하야生殖機能을强健히復活하야人生無上의幸福에好結果滿足을엇게된다

性慾早老 生殖器機能의靑春的復活에伴하야元氣勇氣도勃興하며容貌氣分까지還少하야活動이滋味잇게된다

히스테리ㅡ 感覺欠乏 머리가가볍고氣分이樂觀的으로되고血液이增殖하야機能이健全히되야男便에게滿足을줌으로家庭和樂

健康男女도ㅡ 精力腦力增進劑로常用하면一種言外의엇던큰强味를感得하고血液의靑春化에依하야性的으로還少합

藥價 二十錠 金三圓(試用分) 五十錠 金五圓 百二十錠 金十圓 二百八十錠 金廿圓(大德用) 一用量 一回一錠 日三回

發賣元 東京市銀座新肴町八番地 丁子堂藥房 電話銀座特長五二九二番 振替口座東京七二二七番 大阪市西區立賣堀 電話新町特長四五七番 北海二丁目九番地 振替口座大阪四六番

東京大阪三越白木屋髙島屋松坂屋松屋大丸各酒店及各大藥代理部其他

●全國海外到處有名藥店에잇소

絶品의地는彼國元에・前金注文送料不要 代金引換送料實費徵收

ホシのお茶

호시의차

호시 特製綠茶 (罐入) 一圓五十錢

호시 綠茶 (大)(化粧罐入) 一圓二十錢 (小) 七十錢

호시호지茶 (化粧罐入) 九十錢 (箱) 八十錢

[illegible]

東京・大阪 星製藥株式會社

◇地方論壇◇

平南儒林에告함

平壤 一記者

平南一府十四郡에散在한儒林會員의數는 五萬餘近六萬名에達하는多大數이라고한다 聞할때에筆者는實로無限한希望을가지게되엿다何故인가? 樹大族多라고 六萬餘名을包容한큰團體임으로敎育界로나 實業界로나或은言論界로나모든方面을通하야施設이不足한 우리社會를爲하야 그러한貢獻이잇슬가함으로써이다 諸君의生活程度로보아도 中流以上이고적어도智識階級에잇다고自處하는諸君이안인가?

◇

듯건데平南儒林의代表機關인平南儒林聯合會에서는 二三年前에平南儒林 總會를開催하고本會의趣旨에따라 會員의會費를最少限二圓으로定하고 會費를徵收하는同時에 各方面으로活動하야 高等普通學校를設立하기로 多數可決이되야 其進行方針如何는 聯合會幹部一同에게 專任하엿다한다 뭇노라幹部諸君이여 君等의責任이 그얼마나重하고 또大한가? 一個人의付託이라도 如此한 境遇를當하야 忘置키難하거든 하물며總會의可決이兒戲的一時作亂이안이고 적어도六萬餘名의懇切한 付託이잇슴은커니와一般社會의企待를 저바리고二三年동안이나 一言半辭의何等의消息이업다가 今春에야 비로소 무슨生覺으로다시總會를召集하고 高等普通學校를設立하기로可決하야두엇든 케케묵은懸案을 다시끄어내노코時勢에適切하다는 商工學校를設立하기로 名稱을變更하야돈지가벌서半年이자내도록 또다시絶無消息으로 杳然할뿐이다

◇

幹部諸君이여 諸君이誇張하는바와갓치 六萬餘名會員에게 最少限二圓式의會費만徵收하드래도 十二萬圓이라는巨額이니조금만더活動하면 高等普通學校나乃至商業學校갓흔一個의學校를設立할 基礎는되지안느냐고 反質問할사람도잇슬것이다 勿論六萬餘名에게會費徵收가 그러케容易한事라고는하지안는다 言은易하고行動은難할것이다그러나 扶泰山以超北海의類는안인줄로 確信하는바이다

◇

諸君아-『指不君人則知惡之心不君人則不知惡이라고』하며 도모지 揖食을자고 錢袋를쥐고太平洋을건너온 저富敎師들을보라勿論그네들은 自己들의一大使命인傳道事業에 唯一한手段으로取하야오는것을 우리社會에서하는 假如何間 그네들의힘으로設立된學校가 얼마나만흔가 君等의耶蘇敎를評하야 乾坤의冊張을들치고 『乾坤不老月長在』를찻는것과는天壤之判일것이다

◇

아-諭君이여 孔子도『不恥不君人何君人有』라고하엿다만일或時로 自己의立場이나보고輕浮한一笑에附할뿐이라면 그 問題될거리도업지만은 예에로閑問題될거리나마안인 예에 동안을두고 懸案中인學校問題를講究하야 火速實現하기를 바라는一日이라도速히 善한方法을 다熱이업스면 神聖한이의 이에對하야 바람이만흠으로써 筆者는 付託이크고 付託이큼으로써 諸君의責任이 더욱重한것을發悟하라

◇安城物産品評會光景

公文僞造한 手當金橫領面長

冲天한民怨과馬山面長의非行 郡當局에서는反히擁護的態度

忠南舒川郡馬山面은新塲市塲의苧布産出을爲始하야全朝鮮大市塲의七位를占하는面으로可謂郡內의經濟的咽喉가되여잇슴으로各方面으로보아施設及發展의計圖를必要로一般이늣기는바이나所謂面長金東鎭에對하야一般面民의怨聲이沸騰하다는데前記金面長의非行은非一非再임으로枚擧키難하나距今三年前부터面內의普通學校期成會가成立되엿슴에同會를妨害하든爲人이며面書記와私少한個人感情이잇다고誣陷하야淘汰식힌事件도잇섯던爲人으로市塲稅金을管理하는市塲管理補助員의手當金一年二個月分을橫領한事實이發覺되야方今 面長金東鎭對 補助員朴炳憲間에爭議가매우甚하다는바此에對한仔細한顚末을들건대原來市塲稅金收入에서補助員에게百分之二十分을手當金으로주어頒收人의俸給을支拂하고餘財는留하든지補助員의給料로提供하게되든것을大正十一年度부터는全部를面費의收入으로하고다만補助員의給料로十圓과頒收人의給料로每人六圓式을支拂하라는道의指示에依하야大正十一年及十二年度間에實行하여오다가大正十三年四月에다시方針을變更하야從前의例대로百分之二十을支拂하라는公文이잇섯스나特히馬山面長은市塲補助員과前日부터市塲管理를獨占코저하다가成功하지못한關係로個人感情을만히품고잇던터임으로郡廳의公文과符同하야 大正十二年 五月二日 付舒庶第六四號라는 公文을僞造하야 補助員에게는 何等의通知도업시前記朴炳憲氏에게支拂할手當金을面費에編入하고一年間을暗然히지나왓섯는데今年四月頃에舒川郡財務係에서文書檢閱을하다가前記事件이發覺되매即時面長의非行을擁護하기爲하야도로혀朴炳憲氏를불러다가事件이이미이와가치되엿스니寄附行爲로하야寄附金承諾書에捺印하라고數次勸誘하엿스나朴氏는不應하고말하기를寄附를할터이드래도金額을頒收한後에自進하야寄附할것을詐欺로나의手當金을橫領하엿다가事件이發覺되니가寄附로하라는것은너무模糊치안느냐强迫하여郡當局에서도强制를못하나如斯한非行面長을反히擁護한다고一般은舒川郡當局의行政을批難한다고(江景)

安城物産品評 盛況으로閉幕

去十五日부터十八日까지安城邑內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催한安城發展記念物産品評會는空前의盛況으로四日間入塲者가八萬五千三百七十三人에達하엿고十七日에賞品授與式이잇섯는데當日은雨天임도不拘하고出品者와附近各郡關係者及時實京畿道知事其他道郡官吏의出席者가多하엿스며夜間에는城南電燈會社의臨時電燈으로不夜城을이루엇고入塲者의多數에適當한關係로十九日까지延期하엿스며受賞者는左記와갓다라(安城)

一、安城物産品評會

▲出品點數二、〇九一▲特等七▲一等二一▲二等四一▲三等八五▲四等一八三▲合計三三七

特等 安米=陽城奉在駿、三竹金甫楠▲蒼韓帽=陽城閔泳鎬▲牛=三竹李建弼▲鷄=陽城南善元▲苗木=孔道、岡本吉三郎▲莞草莚=孔道、趙慶根

二、水稻改良品評會

▲出品點數一二三▲特等二▲一等八▲二等二〇▲三等三〇

特等 早神力=利川李文寧▲穀良都=安城尹鍾陽

三、朝鮮酒品評會

出品點數一三七▲特等一▲一等二▲二等三▲三等六▲四等七

特等 安城邑內高鵬堂

佳山靑年創立

去二十日에

咸南新高山靑年會佳山支會의創立總會는去二十日下午一時부터下佳面里에서陣道鍊君의司會로開會하야趣旨說明經過報告가잇슨後規約을通過하고各地에서來한祝文朗讀과祝旗收納이잇나자任員選擧를하고若干의議事가잇슨後各團體代表者의祝辭와本會의祝賀音樂이잇슨後同三時에閉會하엿다고(新高山)

▲會長金基鉉▲副會長金洪仁▲總務金觀釆▲議事部長金瀓奎▲庶務部長申敬魯▲財務部長嚴任煥▲德育部長金明采▲智育部長嚴龍國▲體育部長吳龍魯▲産業部長楊元白▲社交部長韓道鍊

雇傭人相助會

去十九日創立

지난十九日午後八時에咸興商業會內에서雇傭人相助會創立大會를開催하엿다는데出席會員七十七人中準備委員朴毅均氏의開會辭와朴然氏의經過報告가잇슨後臨時議長金炳敎氏가被選되야規約通過와執行委員及檢査委員을選擧하고來賓으로朴炳燾氏의祝辭가잇슨後閉會하엿는데被選된任員은如左하다고(咸興)

◇執行委員 高永奎 權炳斗 朴然 金曾玟 蔡奎淵 朴毅均 朴在鳳 洪壽星 金瑞鳳 韓有慶 楊泰巾 朴長煥 張載源 趙永約 許昌訓

◇檢査委員 金炳敎 石璜根 姜遇聖

執行委員會 別項雇傭人相助會에서被選된執行委員十五人은去十九日午後十一時에咸興商業會館內에서執行委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고

◇決議事項

一、事務所는商業會內에置하기로商業會에交涉할일

一、本會의趣旨를널니宣傳키爲하야今月二十五日東明劇塲에서發會式을擧行할일

一、本會의事務執行은左記各部를置하고分擔執行할일

▲庶務部朴在鳳、高永奎、趙永約▲敎化部朴然、金瑞鳳、張載源▲調査部權炳斗、金曾玟、朴長煥▲救濟部蔡奎淵、韓有慶、楊泰巾▲貯蓄部許昌訓、洪壽星、朴毅均

固城靑聯創立

去二十日大會

慶南固城靑年會에서固城郡靑年聯盟을發起中이라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豫定과갓치二十日固城靑年會館에서創立大會를開催하고參加團體代表十餘名이着席하야警官의警戒裡에塲內는極度로緊張되여發起會側千斗上君의開會辭를맛치고臨時議長金相煜君의司會로規約通過가잇슨後各地團體로부터遝至한祝文祝電을朗讀하고規約에依하야左記와가치委員을選擧한後閉會하엿다고(固城)

◇執行委員 金仲奎、孔龍俱、朴長浩、金在洪、林生浩、姜孝永、千斗上、金相煜、黃熊康、崔璣琪、朴東煥(決議略)

執行委員會 慶南固城郡靑年聯盟創立大會는別項報道와갓거니와大會를閉會하고맛친後同日에第一回執行委員會를固城靑年會館內에서開催하고臨時議長千斗上君의司會로左記와가치常務執行委員과慶南道聯盟代議員을選擧하고閉會하엿다고(固城)

總務部 千斗上 庶務部 金仲奎、孔龍俱 敎養部 黃熊康、組織部 金相煜 宣傳部 千斗上(兼務)金在洪 慶南道聯盟代議員、孔龍俱(下東)千斗上(固城)

嚴戒裡에終了한 咸南記者大會

言權擁護講演會開催問題로 警官과衝突되여一時大混雜

今年七月에發起大會를開催하고以來準備에奔忙하든咸南記者大會는지난二十日午前十一時十五分부터咸興東明劇塲內에서開催하엿다는데參加會員은三十九人이엿스며今番時代日報事件으로因하야一般의輿論이沸騰한때임으로傍聽席에는立錐의餘地도업시滿員을일우엇고一方咸興警察署에서는數日前에準備委員을呼出하야大會席上에서時代日報事件에對한討議를禁한다고宣言하고當日은十餘名의正私服警官을派遣하야塲內를警戒하고잇는中에서一同의拍手로開會하고準備委員都容浩氏의開會辭와李秀乙氏의經過報告가잇슨後南忠熙、張明煥氏가議長에被任하고各地에서遝至한祝電을朗讀한後에準備委員會에서提出한議案을討議하야原案대로可決하엿는데其中咸南記者團結에關하야滿塲一致로咸南記者同盟을組織하기로可決하고諸般決議事項을實行키爲하야執行委員十一名을選定한後에同盟會는閉會하고午後二時半에大會를繼續하야開會하고諸般議案을討議中當日夜에言權擁護講演會를開催하기로可決되엿는데警官席으로부터許可할수업다는注意가잇슴으로 書記徐炳河氏가『우리가決議한後에實行코저하는것은엇절수업는일이나決議할때부터警官의注意를밧음은必要가업다』고絶叫하매一般會員及傍聽席에서는우뢰갓흔拍手聲으로塲內를騷然케하야 記者의會合다운氣分이잇섯스며그러나警官側에서는正服巡査가演壇까지올나가 徐炳河氏를警察署까지가자고함으로一般은그假하야보는수업다고抗議하야結局徐炳河氏는 警察署에까지가게되매會員及數百의傍聽者는警察署에殺到하여 大騷亂을 일우엇스며傍聽者中에서도二人을檢束하엿스나交涉한結果無事히放免되엿슴으로會議는다시繼續되여言論을壓迫하는警察의無理한慣例를報告하엿는데間間히注意와或은中止까지當하엿스며그外에도모든事項을討議한後午後六時半에萬歲三唱으로閉會하엿다고(咸興)

◇決議事項

一、言論權威에關한件

一、地方言論에關한件

一、地方言論機關에關한件

一、記事通信에關한件

一、言論機關과大衆運動에關한件

一、本社와支分局에關한件

一、新聞雜誌와郵便配遞에關한件

一、咸南記者團結에關한件

一、其他事項

◇執行委員

張明煥、南忠熙、徐炳河、朴憲永、劉爀、元貞俊、都容浩、李秀乙、金英淑、金裕璧、韓長庚

◇同情氏名

御客屋、祝賀松門、밋음집、午餐、商業會、晩餐、金濟胤、高衛殖各十圓、韓時殷、錦江樓에招待、金星寫眞館、寫眞

記者協會를 記者團으로改稱

去廿日總會

忠南公州記者協會에서는去二十日午後六時半부터當地料亭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今番變更된記者를紹介後左記事項을附議하고同九時에閉會하엿다고(公州)

一、公州記者協會란名稱을公州記者團으로改名할件

一、本會代表는幹事로하되輪番으로하야當順된幹事가該代表員이되야內外部事務를執行할件

一、位置事務所는第一番으로公州本町朝鮮新聞支局隣室에新設할件

一、每月十五日을定期會合日로할件

(但臨時緊急事項이有할時는先知者가事務所에通寄하야臨時會를請하고團結進行할것)

今番被選順序는朝鮮新聞支局 東亞日報支局 每日申報支局 釜山日報支局 湖南日報社支社

義勇團長 歡迎會禁止

沙里院警察에서

京義線沙里院一般有志靑年四十餘名이얼마前假出獄한上海義勇團長金錫璜氏를歡迎코자該準備를하든中歡迎會當日이든去二十一日에突然히當局에서禁止를하엿다고(沙里院)

新明校後援會

一般有志組織

殷栗郡南部面新明學校는엇던事情으로萎靡不振하든바去秋期부터一般有志와學校職員諸氏가一層努力하야內容을充實하게하며完全한普通學校로昇格하도록活動하야特히五六學年準備로講科를設置하는等여러가지로着着히進行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十七日午後一時에同校父兄과一般有志들이會合하야學校의將來問題의여러가지를討議한結果後援會를組織하엿스며積極으로援助케하야完全한成功을得하도록한다는決議事項을다決議하엿다는데當日選擧된任員은如左하다고(松禾)

會長金弼殷、副會長鄭東浩、書記鄭寅國、會計鄭源根 委員 鄭珣根 鄭基[illegible]諸氏 [illegible] 在鴻 金容三 秦昌淳 金盤件 鄭泰瑛外十四人

巡劇收入으로 圖書部設置

義城三省會事業

慶北義城邑內三省會主催와本報支局後援으로지난十一日부터巡廻素人劇을한다는데巡廻收入金과同情金은三省會文藝部에圖書를購入하야一般에게觀覽케하리라는바巡廻地는安溪、比安、點谷、山雲、安平等地라하며責任役員은아래와갓다라(義城)

文藝部金鍾培 吳鍾洙 反省部吳相鍾 國育部吳相洙 會友金炳文 吳亮洙

潭陽勞聯委員

賃金引上決議

全南潭陽勞働組合聯盟에서는去十九日午後七時에本會館內에서執行委員會를開하고다음과가튼事項을決議한後同十時에散會하엿다고(潭陽)

◇決議

一、賃金引上에關한件

市內運貨運搬은常務執行委員會에서各組合幹部와連絡調査하야提案한原案대로來二十三日부터實施키努力함(但細則은略)

一、精米勞働組合에關한件

去年同盟罷業以後로도解決이아즉나마잇슴을發見하엿슴으로來二十三日에精米勞働組合總會를開하야解決키로함

一、勞總紛糾問題整理會에對한件

勞總紛糾問題는地方勞農運動에莫大한影響이波及됨을認하고整理會發起에贊同하며來十二月中京城에서召集되는整理會에代表李一鮮奇老濟를派遣하기로함

全收穫五石에 小作料三石六斗

咸平地方에無理한東拓看坪

咸平郡新光面柱川里에는小雲節이不遠한今日까지立稻가잇다는데其內容을알어본바에依하면地主는東拓會社며小作人은同郡同面月岩里李永大요地租은八百五十坪되는五斗落畓土인데去九月中旬頃에看坪人今田某와農監曹煥外數人이와서三石六斗로執租하매小作人은길게말할것업시三石六斗를小作人에게주고除分은會社로가저가라한즉農監張도말하기를날도거의되고몰일이밧부니彼此에그럴것이아니라通知書내보낼때에酌量하겟다함으로時刻여겻스나李永大는벌서그會社의慣用手段임을아라채리고그대로두고지내더니果然十一月五日附로小作料納入通知書가왓는데何等의減等이업슴으로區域補助員張鉉斗에게말하되全收穫高五石에不過한立稻를그대로둘터이니그리알아이후눈이나리고바람이칠지라도나는刈取치안켓스니會社에서措處하라하고여름날씨르는볏에비지땀흘려가며지은곡식한알도손대이지안키로하여두엇다고(靈光)

雙岩市塲設置

不遠間開市되리

全南順天郡雙岩面에는從來市塲이잇섯던바五六年前에市塲이廢止된後로東으로順天市塲에四里西으로廣川市에四里北으로槐木市에四里南으로洛水橋市가五里가되여不便이莫甚함으로面民一般은復舊를絶叫하던바지난五日에面民大會를開催하야市塲復舊問題를決定하고委員朴淡奎、朴炳浩、姜永奎、趙允植、姜永徹、徐丙武諸氏를選定하야郡守吳錫裕氏의贊意를得하고塲所는仙巖寺有畓一千三百餘坪을借入하야工事에對한計劃까지完成되얏다는데지난十五日에또臨時委員會를열고市塲復舊의手續을作成하야雙岩面長申喆休氏를代表로하야郡廳과道廳에出願하여不遠間市塲될것임으로各處商人들은檢討이頻繁하다고(順天)

竹鶴勞夜設立

來月부터前進會에서

全南順天郡雙岩面竹鶴里에서는根甲龍氏外三十餘名의靑年이組織한前進會에서는無産階級을爲하야來十二月부터同會館에서勞働夜學을開始하기로目下準備中이라고(順天)

振威農産品評

來廿五日부터三日間

京畿道振威郡梧溪、靑北、玄德、浦升四面에서는來二十五日부터三日間四面聯合農産物品評會를安仲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催할터이라하며同校職員及各關係任員은大奔忙中에努力한다하며出品者와觀覽客의便宜를爲하야自働車部에서는平澤安仲間에賃金을割引提供한다하며各種餘興外에도볼만한것이만히잇슬터이라는데本會에서는初有의大盛況을豫期한다고(平澤)

文化事業計劃

咸南文川郡儒道振興會文川支會는지난六月에創立되여會員이千餘名에達하엿다는데文化事業을計劃하기爲하야方今金品을捐出하는中이라는데義捐氏名은如左하다고(文川)

▲金泰錫、蔡世秉、金基恒、朴尙伯、金昌元、金恒錫、金宗遂、翊白、各十圓▲禹亮洙、金長元、成致麒、金成俊、金秉鎬、方達權、朴晩涉、德利在、金錫河、李宗鎬、李浩倧、金宗淵、各五圓▲蔡元爽、全昌煥、各二十圓▲金兆濟、李垂騰、各五十圓▲金錫鎬十八圓▲金丙鎬百圓▲金賢鎬六十圓▲李鳳翔、金應三、各十五圓▲金昌允三十圓▲金錫福三圓▲金七洙三十圓▲蔡錫龍二十圓▲金學洙十五圓▲金成錫十二圓▲金澤奎、元汝巾、李浚植、金錫圖各十圓▲金斗淵七圓▲金成錫、金成龍、金成元、金錫浩、金丙洙、崔洛齊、文昌燮、各五圓▲安昌麟四圓▲李宗杰、崔致榮、各三圓▲韓京淳、李東陸、各一圓五十錢▲李正浩、韓國榮、各二圓五十錢▲李興律、申俊恒、朴允默、白乘雲、李丙杰、崔相福、張德懋、金仲洙各二圓

男女靑年懸賞雄辯大會

◇時日 十一月二十八日下午七時부터

◇處所 馬山靑年會館

◇申請期日 十一月二十六日까지

◇申請場所 馬山靑年聯合會

◇參加資格 滿十七歲以上男女

◇演題 隨意

◇等級 一、二、三、四等

◇主催 馬山靑年聯合會

◇後援 朝鮮、東亞、時代、馬山支局

金泉佛靑發起會

慶北

慶北金泉面金泉佛敎布敎堂에서는佛敎靑年會를組織키爲하야去十六日午後七時부터有志數人의發起로發起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討議한後十時에閉會하엿는데來十二月中에創立總會를開催하리라고(金泉)

元山貿易狀況

前月과比較

元山港十一月貿易狀況은移出品中增加한것이大豆며減少한것은[illegible]輸入品中에特히增加한것은無하나綿布類가增加하엿고其他에는別로變化가업는바前月貿易額보다別로增加되지안을것이라고(元山)

安城金融經濟

十月中槪況

安城市塲湖西銀行安城支店調査에依하건대十月中當地金融經濟狀況은新穀出廻가漸次增加되는同時에[illegible]이나아직例年同期에比하면閑散[illegible]에依하야其大部分은[illegible]方面에搬出되고十五日부터京釜鐵道沿線物列車의運轉이開始되엿스나[illegible]換業務、商品特取組等手續上[illegible]月末以後는米價의暴落으로因하야農家出穀이一般停止하야[illegible](安城)

勞働夜學設立

方魚津靑年會에서

慶南蔚山方魚津靑年會에서는無産兒童의敎育을目的으로勞働夜學을設立하고學生募集에着手하엿는바入學者가三十名에達하엿슴으로去十六日부터當面洞會館에서敎授를始作하엿다는데敎授課目은朝鮮文、算術、日語等이라하며敎師는李敬希氏外數氏가無報酬로敎授한다고(蔚山)

咸安勞夜創始

去十六日開學

慶南咸安俱樂部에서는無産子女를敎養하기爲하야去十六日부터勞働夜學을開始하엿다는데入學兒童이百五十名에達하엿스며學科는國語、算術、日語를李圭弼、金福宰兩君이敎授한다고(咸安)

綾州勞夜開學

去二十日부터

和順郡綾州勞働靑年會에서는農家의秋收와麥耕이거의끗나서이제부터는農閑期에入할터임으로이時期를利用하야一般無識農民과無産子弟를爲하야去二十日午後七時에當地甲子靑年會館에서勞働夜學開學式을擧行하엿다고(和順)

讀書俱樂部組織

金泉靑年有志가

慶北金泉에서는靑年有志數人의發起로讀書俱樂部를組織하야去二十日午後七時부터大和町少年週報支社事務室에서開催하고洪市容君의司會下에宣言綱領規約通過와委員選擧를順序로하야開會하엿는데宣言綱領과委員은如左하다고(金泉)

◇綱領 我等은智識向上普及과自然科學의眞理求究에努力함

◇執行委員 黃泰善、李海同、李八奉、金壽吉、李鍾泰、洪市容

定州公普展覽會

定州公立普通學校에서는今般校舍增築이竣功되엿슴을機會로지난十四日午前九時부터同校舍內에서第一回農産物品評會竝生徒成績品展覽會를開催하엿다는데一般學父兄及各團體市民이多數來觀하엿다고(定州)

釜山野犬撲殺

釜山府內에는近日野犬이甚하야通行하는사람에게危險이만흠으로釜山警察署에서는來二十四日부터五日間野犬撲殺을施行한다는대야犬이라도牌를채우지안으면野犬으로認定하고撲殺할터임으로一般은매우注意하라고(釜山)

東萊에印刷所

東萊에는今日外지印刷所가無하야地方有志의遺憾으로아든바今番에鮮明印刷所와東萊印刷所란活板이出現하여地方人士는깃버한다고(東萊)

碧潼衛生展覽

平北碧潼警察署에서는地方人民에게衛生思想을宣傳하기爲하야去十七日에當署內에서衛生展覽會를開催하고一般에게觀覽케하엿다고(碧潼)

鐵湖地方

●公州修養靑年任員會 公州修養靑年會에서는去二十日午後七時부터任員會를開하고[illegible]公州靑年會館[illegible]

[illegible]

東北地方

◇咸南永興 [illegible]

◇元山 [illegible]

〈地方短評〉

[illegible]

湖南地方

◎光州勞働共濟會 [illegible]

關西地方

▲信川 [illegible]

海西地方

◇海州東雲面有志諸氏[illegible]

特志와慈善

[illegible]

嶺南地方

●[illegible]

◇元山府協議會 元山府에서는來二十一日午後一時부터府協議會를開하고左의事項을附議하리라고(元山)

一、[illegible]

◇水産會委員會 [illegible](元山)

◇科目 [illegible]

◇元山勞働靑年會 [illegible](元山)

●勞働共濟支會 [illegible]

◇決議事項

一、臨時總會開催의件

一、勞働夜學開催의件

一、將來事業計劃의件

●三千浦靑年會 [illegible]

●晉州勞働共濟會 [illegible]

[illegible]

순사회포를상부에진정하고 도리혀무고죄로형떼가잡혀

本社主催 雄辯大會 辯論速記 ◇演士八名

本社主催第二回全朝鮮學生雄辯大會第一日中等程度學生八名의雄辯大意는아래와갓슴니다。速記한데로그全部를發表치못함은演士諸氏에게未安千萬이나紙面의不足으로不得已한일이외다。그리고速記中錯誤도만을터이며文句의巧拙도업슬수업슬것이나이는全部責任이記者에게잇고演士에게업는것을讀者諸氏께一言함니다。

우리는새朝鮮을建設하자

◇咸興永生校 金完俊

【七時十五分】登壇

여러분에게무엇을드릴가요 西洋사람은「카피」로待接을하는데나는咸鏡道사람이니 구수한咸鏡道보리차나드리겟슴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朝鮮을建設하여야되겟슴니다 엇더케하여야되겟슴니까 새로建設하는데에는 낡은것이잇서야됨니다 그런데 이새朝鮮을建設할사람은누구임니까 朝鮮사람이라하면 이는復數이니 우리는朝鮮사람全部를들고말하는것이아니오 元氣가潑潑하야北風을넘어뛸만한氣慨를가진우리朝鮮靑年들을가르처말함이외다 朝鮮靑年의責任이重하외다 二千萬의運命을거두어진우리靑年의責任이重하외다 우리가建設하자는것을 쉬웁게말하자면 집이오래서쓰고살수업서야 비로소建築을하자는問題가이러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朝鮮은火災도업고 洪水도아니니 …

開拓者의準備

◇全州新興校 金奎東

七時廿六分登壇

…

現下朝鮮人의活路

◇松都高普校 李錫煥

七時四十一分登壇

…

寫眞說明

【上】壇上의演士

【下】滿員後의群衆

大會雜觀

◇覆面記者◇

◇당일아츰부터 본사 뎐화가 엇지밧부엇든지 교환수팔에알이나배지안흘가하는 렴려가잇섯다 이것은면대회가한시간전부터만원된다는 션통이엇섯다 …

朝鮮의現狀과우리의將來

培材高普 金啓鎬

八時登壇

…

싸홈

◇普成高普 朴□□

八時十五分登壇

…

辯論槪評

◇…兩審判談

…

現代의朝鮮學生

◇平壤崇仁校 張仁澤

八時二十五分登壇

…

◇雄辯은無等級

中에開催되엿든本社主催第二回全朝鮮學生雄辯大會第二日은豫定時間으로부터…

靑年아때에努力하자

◇… 金□□

八時五十八分登壇

…

朝鮮學生은奮鬪하자

◇徽文高普校 金□□

九時十六分登壇

…

毛生하는 博士의藥 후미나인

◉天氣豫報◉ 晴一時曇

海軍生活 / 愛와菓子 / 曠野의暗鬪 / 進猛하지 / 시라노 / 優美館

汽車時間

◇京釜本線(下)
大田 天安 水原 永登浦 龍山 京城 [illegible]

◇京義本線(北)
[illegible]

◇京元本線
[illegible]

◇京仁線
京城 龍山 永登浦 仁川 [illegible]

◇湖南線
[illegible]

◇京城線
[illegible]

獄中花 春香 春園作

〔第五十六回〕

수절(十三)

춘향이 또한번 앗득 하여지엇다가 나중에는 드득 감며
「목사를 하시오! 목사를 하시오!」
날판재를 떠부치니
「아이고 이몸이 죽네 그려 참십당년로 모님이 누구를 의지하리」
여덜재를 떠부치니
「아이고 내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로 기생으로 태여나서 수절조차 맘대로 못하는고 아이고 내팔자야!」
아홉재를 떠부치니
「구곡간장 매친한이 구만장련 놓히나라 구중궁궐 깁흔곳에 하소연이나 하고지고 구차한 이목숨이 구태 살려 아니하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곳고구든 이내정절 굽힐줄은 생념도 마오!」
열재를 떠부치니 춘향이 고개를 번쩍들어 부사를 노려보며
「죽여주오! 죽여주오! 어서 밧비 죽여주오! 죽어서 혼이라도 남편 따라 가려하오 당신네 법에 수절도 죄라하면 식칼형틀이라도 겨서 죽여주오!」
하고 그만 고개를 숙여버리니 살스침은 눈어지고 새가 보이고 얼굴이 해스속하여지고 입술이 푸르게되니 보든관속들도 모다 코은 누구나 고개를 돌리고 참아바로보지못한다
월매 춘향을 관가로 붓들려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낫이 기울어도 안나오고 볏히 마당한복판까지 가도 안나오니 외딸둔 어머니의 마음이라 안질부절할 수가 업서
「이애가 아마 사스도 말을 거역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나보다」
하고 상단을 다리고 관가로 들어가더니 길에 삼문밧게서 칼쓰고 끌려나오는 춘향의 모양을 보고 와락 달녀들며 칼머리에 매어달리며 목을노아운다—
「아어고 이게 왼일인고? 신관사스도 나려와서 치민선정 아니하고 생사람을 죽이려 왓나 생금가튼 내딸을 무슨 죄로 귀럭치엇노? 하나님 맙소서 내딸이 죽으니 살려주오 내딸 죽으면 나는 살아 무엇하라」
하고 겨오 정신을 차려 눈이 반히 뜨는 춘향의 목을 안고
「악아 이것이 웬일이냐 어린 것을 얼마나 때렷스면 이런케될가 남을 엇지 원망하리 모도 다 비탓이다—네탓이야 네탓이다 아모리 그리한들 닭의새기 봉이되며 각관기생 렬녀되랴 사스도 분부 들엇드면 이런매도 아니맛고 작히 조흔 예판이라 돈쓸데 돈쓰고 쌀쓸데 쌀쓰고 낭원사십팔면이 우리집 찬광일 것을 이년아 무엇한다고 수절수절 하다가 이꼴이 되어 단말이냐 나도 젊엇슬쎄 친구상종할께 치치면 감사병사 수사요 나리치면 각읍수령 부수히 겨글 죄에 쇠곳만 하늘양이며 밀생 낫지못할러라 이년아 누구는 너만 못하다드냐 후일 사스도 다시못거든란 잔말말고 수청을 어 실차뉘나 하렴으나!」

가시고 눈물이 흘너 고개를 돌린다
부사도 춘향의 형상을 보니 속이 부쩍부쩍 조이긴 하나 한번 내어 논 령을 다시 거둘 수도 업서 하나 둘더 친는 것을 수를 넘어 처음이 되어도 춘향은 죽엇는지 살앗는지 말도 업고 눈도 움지기지 아니하니 부사 령중청을 바라보고
「이사람! 관면시끔 상것이라 모질기도 하여 그려 아모리 모질기로 그대도록 모질단 말인가 신청지초에 살인하기도 엇더하니 그만치게」
「글세 그려하외다」
「아니이 사람 치만 맘은 살친을 죽이기로 관계할가」
그래도 령청은 몸을 흔들며
「글세 그러한가 보오」
부사 못맛당하야 얼굴을 찡기리더니
「여보아라! 그년 독하기로 일온진덴 독사이상이로고나 장래 크게 읽키지를 년이로다 후일에 다시 칠양으로 저년을 큰칼 씌우고 항쇄 족쇄하야 하옥하라!」
사령의 령을 듯고 춘향을 글러 형틀에서 나리려노호니 춘향이 아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 가지자는 하다 간신이 밧게 내어 발을 못하나 허도 채고 눈도 흘기고 한숨도 쉬고 모든 관속이 다 부사를 원망하면서도 범이라 할일업서 큰칼 목칼을 춘향의 목에 씌우고 칼머리에 인봉하고 거멀못으로 목수쇄하고 옥사당에 게날려 한거름에 엄더지고 두거름에 쓸어지며 옥으로 나려가니 보는사람

質疑應答

◇範圍는 法律問題……
◇記述은 簡明爲主……
◇原稿는 葉書로 表面에 『質疑係』라 朱書하심을 要
◇應答은 반듯이 本欄에 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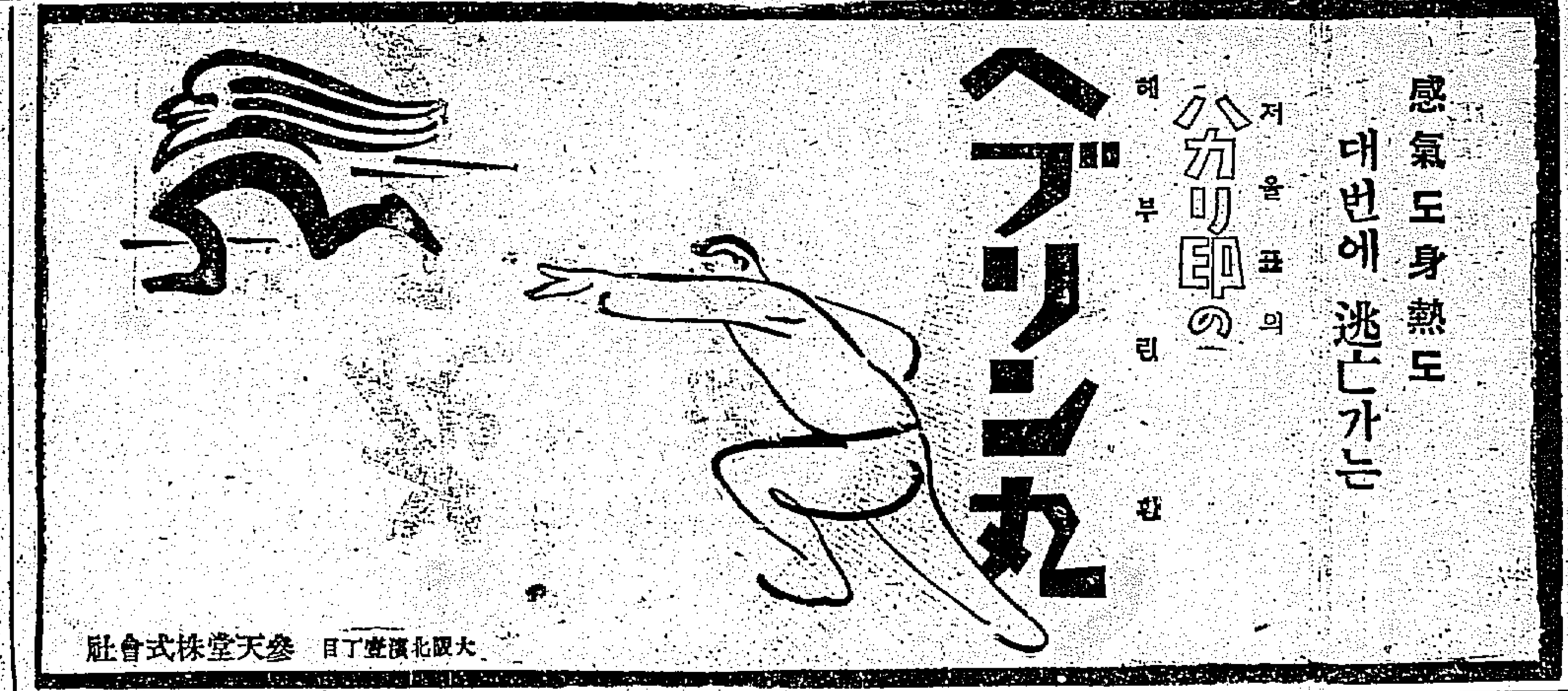
【問】 本人이 大正八年 保安法違反으로 六個月 受刑(但五個月後出獄)한 事有하온데 只今에 復權이 되랴면 이에 對한 手續이 엇더한지오

【答】 復權에 對한 特別한 手續은 無하옵니다 (公平洞四九 辯護士 金泰榮氏談)

【問】 甲이 乙에게 金幾何를 貸給하엿든바 二個年이 지나도록 支拂치 안음으로 借用證書의 期限을 지나서 書信으로 還償督促을 하엿스나 支拂치 안음니다 借用金의 期限이 經過되기는 一個年半이나 되엿슴니다 萬一에 本人이 好意로 外償還치 안는 境遇에는 如何한 手續을 하여야 바들수잇슬는지요? (一問生)
(但借用證書는 紛失)

【答】 訴訟할 수 밧게 업슴니다 辯護士 金泰榮氏談

◉性學大家 澤田順次郎先生新著 ▼四六判洋裝美本▼三百六十頁
◉兒孩가되는法과 안되는法의 秘法公開!
姙娠과 避姙의 新研究
▲忽七版! 煩悶解放!
本書는 斯界의 權威인 最新苦心한 結果公開한 最新著
[illegible]
▲定價 壹圓卅錢 ▲送料 十錢
振替 東京 六六四五八〇 東京市上野櫻木町 好文社



男의 生殖器
短小衰弱의 復活
早老를 防하고 精力을 旺盛케하는
大金牌 受領의 眞空水治療法器
八大醫學博士 實驗證明과 讚辭

人生最高의 愉悅과 幸福을 除去하는 生殖器障害, 神經衰弱의 復活에는 偉大한 發明으로 博覽會나 共進會에서 最高位名譽大金牌를 數個受領하고 政府로부터는 合計五個의 特許權을 下附하고 또 八大醫學博士를 비롯하야 專門大家 亦 [illegible] 의 實驗證明과 讚辭를 바든 本所의 眞空水治療法器를 使用하면 藥으로 고치지 못하든 生殖器 短小를 發育케하고 手淫及 過淫의 害, 遺精, 夢精, 早漏, 陰萎, 快感 [illegible] 老人은 性的으로 젊어지고 少壯者는 더욱 더욱 精力이 旺盛케되야 些少한 費用으로 언케라도 愉快하게 人生天與의 幸福을 享樂할 수 잇게 됩니다

眞空水治療法器 第一位 大金牌受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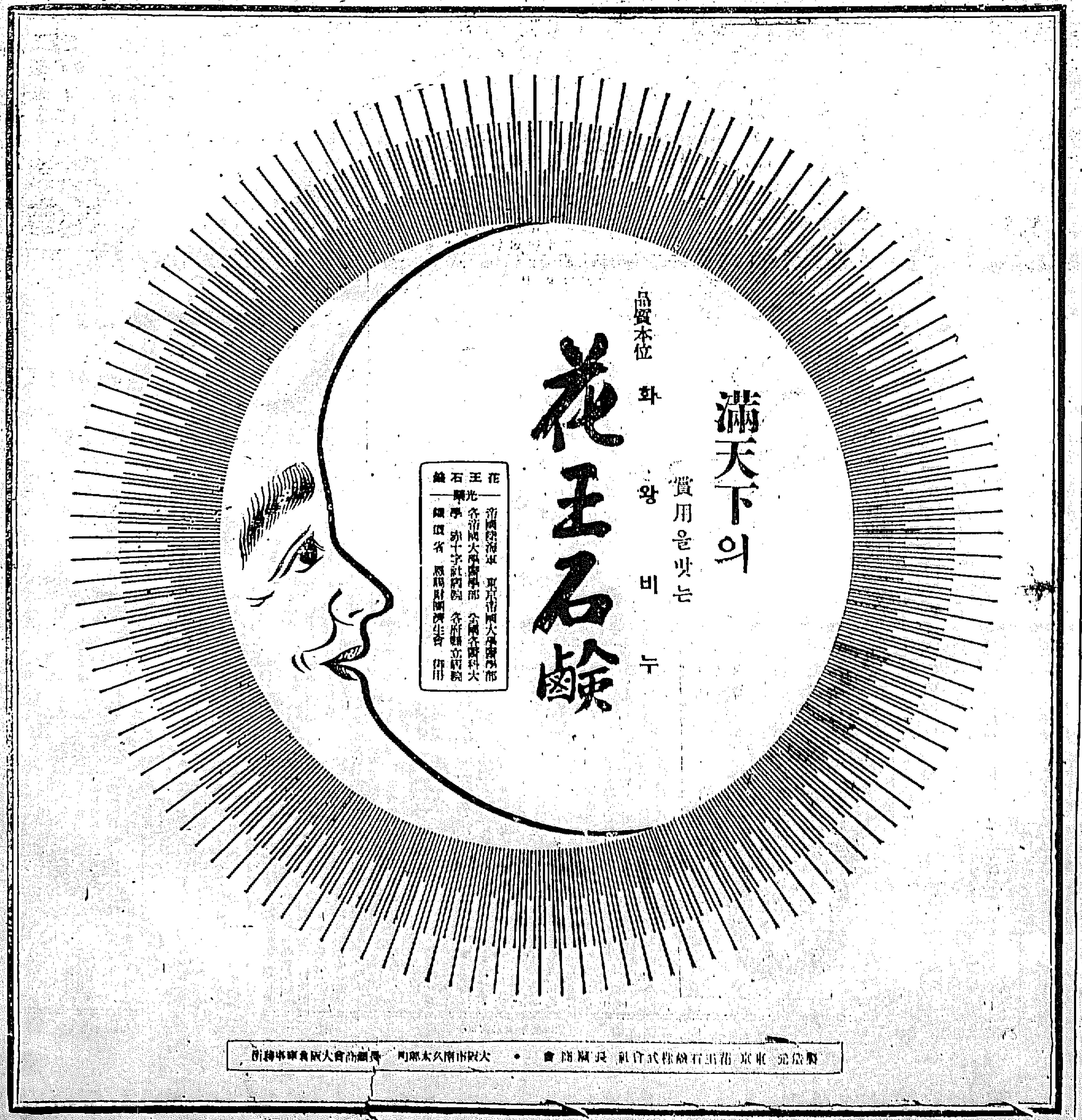
◎包莖은 從來手術하야 切取하든 外에 他道가 無하든 包皮를 特許의 包莖器로 無血無痛하게 切取하지안코 完全自治됩니다
◎實驗例 附圖入 說明書 新聞名記入 申込次第 無代로 密送함 個人名義 僞物注意하오
東京市芝區新橋 [illegible] 振替東京七三九 大阪市東區 [illegible] 振替大阪 [illegible]
東京 大阪 新療法研究所

生의 復活 悲觀으로 樂觀
精力의 源泉
活力
一日一回 就寢前 服用의 에모고-루 作用
本劑는 熱帶地方에서 産出하는 稀히 高尙한 動物의 睾丸中으로부터 抽出한 精分과 호루몬(ホルモン)鑛物性에 特殊藥으로하야 吸出한 最新美味의 錠劑입으로 其效果神秘한것은 服用即時感하게되나이다 그러함으로 難頑的 한 險〇이라도 數回服用으로 神妙한 滿足을 어드며 元氣旺盛과 精神爽快가 不知中自然히 治滿케하는 所以로 現今歐米에서 盛旺히 實用되는 逸品이오며 本劑는 主效의 範圍가 廣況하나 左의 各症의 第一奇妙한 效果를 奏하나이다
●生殖器의 障害, 生殖器性 神經衰弱, 婦人性的 缺亡, 老衰, 强壯의 少, 壯健의 [illegible]

定價表	
十回分	金參圓
廿回分	金五圓
四十五回分	金拾圓
百回分	金貳拾圓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黃金町一丁目 (電話本局一六六〇 振替京城一四二五八)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 電車通 (振替東京二一八五八)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 電停前 (振替大阪五二五一八)
附屬醫院 本支店內에 附屬醫院의 設備가 有하야 何人에게든지 診察治療를 하오니 患者는 來店하시오

朝鮮自動車研究所
運轉手 募集 運轉手 養成
入學案內書 二錢郵券 封入申込次進星함
京城府崇仁洞 (電話 龍山 壹〇〇番) [illegible]



서울안에서 本報를 購讀하시랴면
京城府堅志洞
東亞日報京城販賣部로
電話光化門七三〇番

御園固煉白粉
미소노고련백분
白粉下에는 御園の蕾 미소노의 쓰보미

1 御園固煉白粉의 特徵이 만코 함한 便宜品입니다
2 特히 물에 으고 두번 경게 발라 모흘이나지 안슴니다
3 白粉이 지안케하며 肌膚의 念慮는 全然업슴니다
4 原料를 充分히 精選하기 眞心하야 다도 낫지만슴니다
5 普通煉白粉보다 數倍나 濃厚하게 되는것입니다

1 어느부 게 白粉이 몰 붓 나다
2 白粉이 마 유 비로 잘 퍼 집 니다
3 白粉이 오 래 保 存 됩 니 다
4 皮膚에 營養을 줍 니 다
5 얼골의 잔 때 를 너 함 니 다
6 기 름 기 나 질 지 안 케 함 니 다

本舖 東京 伊東胡蝶園
朝鮮代理店 朝鮮釜山 [illegible] 商會

第七二